

세계도시동향

Global Urban Trend

헤드라인뉴스 수소자동차의 허브로 성장하기 위한 청사진 발표

문화·관광 원주민 체험 관광 사업 성장세 지속

사회·복지 성전환자 기본인권 보장을 위해 성전환자 전용 화장실 설치

세계도시동향 해외통신원

〈북·중·남미〉		〈아시아〉		〈유럽〉	
미국		말레이시아		네덜란드	
시카고	강기향	쿠알라룸푸르	홍성아	암스테르담	장한빛
올랜도	박혜진				
하와이	임지연	뉴델리	박원빈	독일	
휴斯顿	이경선		박효택	베를린	홍남명
캐나다		인도네시아		프랑크푸르트	
에드먼턴	장지훈	자카르타	박재현		이은희
토론토	고한나				
아프리카		중국		스페인	
케냐		광저우	손지현	바르셀로나	진광선
나이로비	한 을	베이징	정민욱		
		충칭	모종혁	이탈리아	
				로마	서동화
				피렌체	김예름
				프랑스	
				파리	김나래

수소자동차의 허브로 성장하기 위한 청사진 발표

중국 광저우市 / 산업·경제

광동省 광저우市는 2025년까지 수소 관련 인프라를 구축해서, 중국에서 가장 선진적인 수소 자동차 허브로 성장하겠다는 청사진을 발표. 이에 따라 2025년에는 광저우市의 수소자동차 산업 규모가 100억 위안을 웃돌고, 연간 3만 톤의 수소연료전지를 생산하며, 50개 이상의 수소연료충전소를 건설할 계획임. 중국 중앙정부도 2025년에는 전국적으로 수소자동차 10만 대를 보급하고, 2030년에는 100만 대까지 확대하는 중장기 목표를 발표했음

수소자동차 허브로 성장하기 위한 광저우市의 청사진

- 2022년 12월 6일 광동(廣東)성 광저우(廣州)시 정부는 ‘광저우市 수소연료전지자동차¹⁾ 시범응용업무방안(燃料電池汽車示範應用工作方案, 이하 ‘업무방안’) 2022~2025년’을 발표
 - ‘업무방안’에서는 광저우市가 오는 2025년까지 수소자동차의 대규모 공급을 추진하고 수소산업 체인을 강화하며 수소연료충전소를 확충하는 등 수소 관련 인프라를 구축해, 종합 실력에 있어 중국에서 가장 앞서는 수소자동차 허브로 성장하겠다고 밝힘
 - 2025년에 광저우 시내에서는 연간 3만 톤의 수소연료전지를 생산하고, 시외에서는 연간 1만 톤의 수소연료전지를 공급받아 안정적인 공급망체계를 갖출 예정. 이를 위해 50개 이상의 수소연료충전소를 건설하여 수소연료전지의 생산과 운용을 일체화한 시스템을 완비할 계획
 - ‘업무방안’은 2025년에 광저우市의 수소자동차 산업 규모가 100억 위안을 웃돌 것으로 전망. 따라서 향후 중국 수소자동차 시장을 선도할 수 있도록 지역 내에서 5개 핵심부품 생산업체를 선발하여 육성할 방침임
 - 수소자동차 관련 부품 생산업체의 육성을 위해 각 항목의 부품 개발에 있어 큰 성과를 거둔 기업의 직원과 팀에게는 광저우市가 1인당 5만 위안의 인센티브를 수여. 다만 ‘업무방안’ 기간 내 특정 업체의 직원과 팀이 5,000만 위안 이상의 인센티브를 수령할 수는 없음

1) ‘수소연료전지자동차’는 수소를 연료로 사용하여 생성한 전기에너지를 전자로 하여 굴려가는 자동차를 가리키는데, 보통 ‘수소자동차’라고 줄여서 부름. 수소자동차는 충전 시 수소연료전지를 원충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5분 정도면 충분하고, 1회 충전으로 800km 안팎을 주행할 수 있음. 무엇보다 배출하는 탄소량이 거의 없어 전기자동차보다 훨씬 강력하면서도 환경친화적인 자동차라고 평가받고 있음

중국은 수소자동차 왕국이 되기 위해서 매진 중

- 2022년 3월 중국 중앙부처인 국가발전개혁위원회와 국가에너지국은 ‘수소에너지 산업발전중장기규획(氫能產業發展中長期規劃, 이하 ‘중장기규획’) 2021~2035년’을 발표
 - ‘중장기규획’은 중국에서 2025년에 수소자동차 10만 대를 보급하고 수소 관련 인프라를 대폭 확충하여 2030년에는 수소자동차를 100만 대까지 확대한다는 과감한 청사진을 담았음
 - ‘중장기규획’의 목표는 2021년 중국에서 판매된 수소자동차가 약 1,000대에 불과한 현실을 감안하면 아주 파격적임
 - 현재 각 지방정부는 중앙정부의 방침에 따라 수소자동차의 판매량을 늘리기 위해서 10~15만 위안의 보조금을 지원
 - 중국 자동차업체도 이러한 기조에 발맞추어 수소자동차의 개발에 박차를 가함. 중국 최대 자동차업체인 상하이자동차(上海汽車)는 2025년까지 수소 승용차를 10종이나 개발할 계획
- 최근 전 세계 수소자동차의 판매량은 극히 미미해서 전기자동차의 0.36% 수준에 불과
 - 11월 말 글로벌 자동차시장 조사업체인 마크라인즈가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전 세계 수소연료전지자동차의 판매량은 2018년 3,904대, 2019년 7,580대, 2020년 8,320대, 2021년 1만 5,501대, 2022년 1~10월 1만 6,195대로 견고하게 발전하고 있으나 폭발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지는 않음
 - 현재 자동차업체에서 생산하여 판매하는 수소 승용차는 상하이자동차의 맥서스, 현대자동차의 넥쏘, 도요타의 미라이, 혼다의 클래리티 등 극소수임

급성장할 중국 시장을 내다보고 진출한 한국 업체

- 중국 중앙정부와 광저우市 당국의 강력한 수소자동차 발전 의지에 따라 현대자동차는 2022년 10월 광저우市에 해외 첫 수소연료전지 생산기지인 ‘HTWO광저우’를 설립
 - HTWO광저우는 광저우개발구 내 20만 2,000m²의 부지에 수소연료전지를 연구, 개발, 생산, 판매하는 종합적인 해외법인임
 - HTWO는 2020년 현대자동차가 미래산업전략으로 공개한 수소연료전지시스템 브랜드로, 2030년까지 70만 개의 수소연료전지를 세계시장에 판매하겠다는 목표를 제시
 - 현대자동차가 HTWO광저우를 통해 향후 수소자동차 넥쏘의 중국형 양산차를 생산하여 중국 시장에 공급할 예정

- 넥쏘는 2022년 4월 중국 교통당국으로부터 신에너지자동차 정식 라이센스를 취득하여, 이미 중국 내 각 지방정부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됐음
- 이러한 상황은 광저우市의 수소자동차 혀브 전략과도 맞물려 있어, 광저우市 입장에서는 HTWO광저우 덕분에 수소연료전지 공급망체계를 갖출 수 있어 서로에게 이익이 되는 ‘원원(Win-Win)’ 효과를 낳음



[그림] 현대자동차가 광저우市에 건설할 ‘HTWO광저우’의 조감도 (출처: 남방넷)

<http://www.chinapower.com.cn/dww/ddqc/20221208/178629.html>

<https://baijiahao.baidu.com/s?id=1751600400511104706>

https://xapp.southcn.com/node_fb07388412?k=575ce8d075

https://www.ndrc.gov.cn/xxgk/jd/jd/202203/t20220323_1320045.html

원주민 체험 관광 사업 성장세 지속

캐나다 / 문화·관광

캐나다에서는 원주민 관광팀을 중심으로 관련 단체가 연합하여 토착 원주민 체험 관광 사업을 육성. 국가와 주정부 차원의 재정 지원을 받아 원주민의 경제적 자립을 이루고 내외국인 관광객의 원주민에 대한 이해와 유대를 증진하고 있음

배경 및 목적

- 원주민 체험 관광은 대상 지역의 토착 공동체 및 전통 지역을 주류 사회와 잇는 퍼스트 네이션(First Nations), 메티스(Métis) 또는 이누잇(Inuit) 민족이 소유, 운영 및 관리하는 관광 사업임
 - 캐나다 원주민은 독특한 역사와 언어, 관습을 가지고 있고, 전체 인구의 약 4.9%를 차지
- 1980년부터 원주민 관광 사업의 수가 증가하면서 연방정부는 원주민 관광에 대한 논의를 시작
 - 캐나다 원주민 관광팀(Aboriginal Tourism Team Circle, ATTC), 캐나다 원주민 관광청, 원주민 관광 홍보 서클(Aboriginal Tourism Marketing Circle) 등으로 국가 차원의 조직 형성
 - 캐나다 원주민 관광 협회(ITAC)는 캐나다 전역의 20개 이상 원주민 관광 산업 조직과 정부 대표로 구성된 컨소시엄임
 - 컨소시엄은 토착 문화 관광 표준을 제정하고, 모범 사업을 발굴하고 상품화하는 역할 수행
- 원주민 문화 관광은, 관광객 체험활동이 고유한 원주민 문화를 존중하고 상업성보다는 진정성 있는 방식으로 응화되는 데 궁극적인 목적을 둠. 또한 관광객이 원주민의 생활과 경험을 체험하도록 하는 데 있어 원주민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도록 함

원주민 체험 관광 사업 운영 내용

- 토착 원주민 체험 관광 운영 조건
 - 원주민 회사 혹은 부족과 같은 원주민 관리 조직이 사업을 운영
 - 토착민이 최소 51% 지분을 소유해야 함

- 원주민이 주도해 개발한 문화 콘텐츠를 활용
- 원주민 장인, 공예가, 이야기꾼, 연예인 등이 방문객과 직접 대면하여 상호 작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 캐나다 원주민 관광 협회의 사업 지원 사항
 - 사업 인증 절차 지원 및 인증 표식 제공
 - 최대 1만 달러의 초기 사업 지원금 제공
 - 관광 혁신 기업 육성 워크숍 무료 제공
 - 사진 홍보 보조금 프로그램 시행



[사진] 오로라 관광 숙박 체험 (출처 <https://auroravillage.com/products/aurora-viewing-winter-spring/>)

- 원주민 관광 개발의 예
 - 노스웨스트 준주(準州) 옐로나이프의 오로라 마을에서 원주민 호스트와 티피 숙박
 - 앨버타주의 공룡 화석지인 야생 서부 드럼헬러 배드랜드(Drumheller Badland) 여행
 - 퀘벡에서 이누잇 부족과 함께하는 에시핏(Essipit) 고래 관찰

토착 원주민 관광 산업의 의의와 성장세

- 문화적으로는 풍요롭지만 서구 문화 유입과 지배로 인해 역사적/경제적으로 피폐화된 원주민 사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음
 - 원주민이 주도하는 관광 사업은 지역 문화와 환경 존중의 정신을 공유함으로써 지역 사회의 수입원 역할을 함
 - 또한 서구사회로 대표되는 주류 사회와의 화해를 촉진하는 동시에 방문객에게 원주민 문화에 대한 깊은 이해를 제공
- 원주민 주도 관광의 장점
 - 원주민 문화에 대한 인식 확대
 - 지역사회 구성원의 고용 창출
 - 전통 보존
 - 주류 사회와의 화해 촉진
 - 지역 창업 지원
 - 젊은 층의 기술 훈련 증진
 - 야생 동물 지역에 대한 환경영향 감소
- 고용 규모가 2019년 3만 8,900명에서 2021년 19만 7천 명으로 성장
- 사업 분야 세분화
 - 숙박업, 예술/문화, 야외활동, 식음료 및 소매, 기타 분야 등 총 1,889개 사업 진행

<https://opentextbc.ca/introtourism2e/chapter/indigenous-tourism-in-canada/>

<https://indigenoustourism.ca/tools-resources/the-impact-of-covid-19-on-canadas-indigenous-tourism-sector-2021-update/>

<https://indigenoustourismalberta.ca/industry/about/>

<https://indigenoustourism.ca/>

장지훈 통신원, macgyvar@gmail.com

성전환자 기본인권 보장을 위해 성전환자 전용 화장실 설치

인도 데리 NCT¹⁾ / 사회·복지

델리 NCT 정부는 성전환자의 화장실 이용 불편을 줄이기 위해 장기적으로 공공화장실 중심으로 전용 화장실 설치를 추진. 다만, 전용 화장실을 설치하는 데 시간이 필요한 만큼 단기적으로는 장애인 화장실을 성전환자 겸용 화장실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함

정책적 배경

- 성전환자(transgender)²⁾는 보수적인 인도 사회에서 상대적으로 차별받고 소외당하는 대상으로 인식되며, 이와 관련된 사회적 관심이 확대되고 있음
 - 2014년 인도 대법원은 성별 선택의 권리를 인정하는 동시에 제3의 성별을 위한 화장실을 포함한 기본시설 제공에 대한 국가의 의무를 인정하였음
 - 데리 NCT 지역 내 성전환자는 2011년 기준 4천 명 수준으로 파악됨
- 생리적 관점에서 공공화장실 이용 불편에 대한 개선책이 필요하며, 고등법원 역시 지방자치단체에 성전환자 전용 화장실 설치를 요구하고 있음
 - 성전환자의 성별 변경 후 해당 화장실 이용 금지는 차별로 간주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어려움이 일부 존재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고민이 필요
 - 성전환자 입장에서 위험과 불편함 때문에 공중화장실 이용에 어려움이 있어 생리적 질환의 비율이 일반적으로 높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음. 이에 이들은 전용 화장실 설치를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음

주요 내용

- 데리 NCT 정부는 2022년 하반기부터 지역 내 505개의 공공화장실 내 장애인용 화장실을 성전환자와 공용으로 사용할 수 있게 개방하였음
 - 단기적으로 전용 화장실의 대대적 공급에 어려움이 있는 만큼 당분간은 기존의 장애인 화장실을 공용으로 전환하여 문제점을 완화하고자 함
 - 지역 전역에 있는 지하철 역사 내 347개 화장실이 공용 화장실의 다수를 차지
 - 공공화장실 내 장애인 화장실은 일반적으로 개별 화장실 형태로 되어 있어 개인의

1) 데리 NCT(National Capital Territory of Delhi)는 올드델리(Old Delhi)와 뉴델리(New Delhi)를 합친 데리 수도직할지역. 뉴델리市가 인도의 수도

2) 생물학적 성과 심리학적 성이 일치하지 않는 사람으로 정의되며, 인도에서는 히즈라(Hijra)가 대표적인 사례임

프라이버시를 지킬 수 있으며, 기존의 장애인 화장실에 성전환자용 표지판을 별도로 추가해 안내하고 있음

- 현재는 지역 내 9개의 성전환자 전용 화장실을 제공하는 수준이지만, 현재 56개를 건설 중이고 추가로 6개를 설치한다는 계획을 세워 2년 내에는 전용 화장실이 대폭 확대될 것으로 예상
 - 특히 지자체, 공기업, 경찰서 등 공공기관 내 전용 화장실 설립이 의무화됨에 따라 2021년부터 이들 기관을 중심으로 전용 화장실을 설치하고 있음

정책 평가

- 인도는 공공시스템 내에서 제3의 성별을 인정하고 성 정체성에 관계없이 동등한 법적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전용 화장실 설치에 비용이 소요되지만, 성전환자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를 존중하려는 조치라는 평가
- 우선 장애인 화장실을 겸용으로 활용하도록 해 해당 성별의 기본인권을 보장하고 비용을 절약했지만, 임시적 조치에 불과하다는 일부 부정적 시선도 존재
 -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으로 기존의 성별을 구분한 화장실 대신에 성 중립 형태의 화장실³⁾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도 일부 존재



[사진] 성전환자 화장실 이용 표시문 (출처: 인디아익스프레스)

3)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공중화장실로,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하는 것을 기본으로 기존과 다른 형태의 화장실로 설계되는 것이 특징

https://www.business-standard.com/article/current-affairs/over-500-pwd-toilets-can-be-used-by-transgenders-delhi-govt-to-hc-122080300573_1.html

<https://www.hindustantimes.com/cities/delhi-news/all-govt-offices-mcds-police-to-have-separate-toilets-for-transgender-persons-101613584502022.html>

<https://www.indianexpress.com/article/cities/delhi/transgenders-get-separate-toilets-at-delhi-metro-7476513/>

<https://www.lawbeat.in/amp/news-updates/delhi-high-court-grants-further-time-delhi-government-file-report-constructing-toilets-transgender>

<https://www.siasat.com/delhi-govt-asks-authorities-to-provide-toilets-for-transgenders-2092145/>

<https://www.thehindu.com/news/cities/Delhi/over-500-toilets-meant-for-pwd-can-be-used-by-transgenders-delhi-govt-tells-hc/article65721348.ece>

<https://www.theprobe.in/delhi-government-scores-a-zero-on-transgender-welfare/>

세계도시동향 제542호

발행인	박형수
발행처	서울연구원
	06756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340길 57
	02-2149-1234
	www.si.re.kr
ISSN	2586-5102
발행일	2022년 12월 19일

세계도시동향은 서울시 정책 개발과 도시 관련 연구에 참고할 가치가 있는 해외 주요도시의 정책사례와 동향을 소개하는 정기간행물입니다.
세계 각지에서 활동 중인 해외통신원들이
시의성 있는 사례와 정확한 현지 정보를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세계도시동향에 관한 문의나 견의사항이 있으신 분은
서울연구원 출판팀 세계도시동향 담당(trees29@si.re.kr)에게
연락 바랍니다.

ISSN 2586-5102

06756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340길 57

02-2149-1234

www.si.re.kr